

김광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밝은문화모임 실장

대중문화속의 이미지는 어떻게 소비되는가?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스케치-

누구나 한번쯤은 잠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꿈을 가지며 언제나 이성의 지배로 완벽하게 자신의 세계를 관리해 나가지 못한다. 자신의 욕구를 무언가로 만족시킬 수 있는 꺼리를 자신의 삶속에서 머뭇거리림 없이 찾아나아갈만큼 자율적이지만은 않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계몽 정신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구축된 현실 속에서 그러한 비자율적 숭배의 여지를 발견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래서 자연 비교적 조작성이 용이한 문화의 영역에서 새로운 현실(정확하게는 비현실)의 이름으로 그러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듯하다. 특히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는 그 수용자인 대중의 성격이 문화 생산자들에 비해 극히 타율적이므로, 그만큼 숭배에 대한 심리적 수요는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중문화에서 문화생산자들에 의해 새로운 현실 즉 이미지들이 어떻게 조작되어 실재와 분리되어 수용될 수 있는가를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을 묘사하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마이클 잭슨 공연 스케치

The king of pop - Michael Jackson, History tour in Seoul!

마이클 잭슨의 5번째 앨범 「History」홍보를 위한 순회공연이 10월 11과 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넓다란 운동장에 가을 밤의 싸늘함이 내릴 즈음부터 관중은 자꾸만 하늘을 쳐다보는 회수가 잦아졌다. “어디로 올려나? 어떤 모습으로 올려나? 우주선을 타고 온다는데...” 이같은 관중의 공동 심리는 막연한 기다림을 설레임과 즐거움으로 바꿔 주기도 했으며 ‘우린 함께 기꺼이 기다리겠다’라는 무언의 결의를 교환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황량한 콘크리트 골조물을 옮겨 놓은 것 같은 무대는 핸드볼 경기장만 했고 온갖 기기로 둘러 싸여 있었다. 무대 양측엔 대형스크린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옆엔 약 20m높이의 「마이클 잭슨」사진이 부조(浮彫)처럼 걸려 있었다. 그리고 무대 전면엔 관중석을 향하여 가교(架橋)가 길게 놓여져 있었다.

“마이클 잭슨 히스토리 투어 공연 전 30분입니다”라는 장내방송과 더불어 관객은 마이클 잭슨과 동행하길 강요받았고, 한편으론 기꺼이 동참할 준비자세를 가다듬어 갔다. 마침내 “마이클 잭슨 히스토리 투어 공연 전 5분입니다”라는 장내방송이 나온 후 관람장내 모든 조명은 꺼지고 무대중앙의 스크린은 수많은 영상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벌써 관객은 멀티비전 속으로 들어가 우주열차를 타고 은하철도를 달리고 있었다.

관중은 피라밋을 스치고 그리스 신전을 지나 수많은 시공간을 탈출 하며 마이클잭슨 제국의 국민으로써 먼 우주여행을 시작 한 것이다. 화면에서 외계행성에서의 로켓발사장면이 이어졌고 긴박한 멘트들과 웅장한 굉음들이 빛는 긴장감을 뽐내내는 순간, 폭발음과 함께 무대바닥을 뚫고 3-4미터로 치솟은 우주선, 자욱한 연기, 우주열차의 속도감에 이미 넋이 나간 관객, 폭죽이 그리는 불꽃. 이렇게 마이클 잭슨은 우리곁에 왔다. 우주 저

건너편에서... 'Scream, Billie Jean, Black or White, You are not alone, Beat it, Thriller ...'라는 선물을 들고서...

2. 잭슨 제국의 儀式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은 시작부터 관중을 철저히 길들이기 하면서 관중을 매료시켜 나갔다. 2시간 30분 동안 관중에게 환상의 세계로, 또는 그의 제국 국민으로 기꺼이 공연에 참여하게 했던 것은 마이클 잭슨측에서 준비한 기획과 연출이다.

그는 앨범의 제목 「History」에 걸맞게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여 밝은 미래를 여는 역사의 제안자였으며 그의 능력이 발하는 세력권은 인류의 보편성이 적용되는 전영역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라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그의 역사가 펼쳐지는 지대(地帶)로 설정하였다. 이 영역내에서는 어떤 논리도 우선시 될 수 없으며,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그는 이 지대내에서 통치자인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제왕으로 군림하여 '사랑과 평화'의 의식(儀式)을 집전할 수가 있다.

사랑

잭슨의 공연에서, 관중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은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마이클이었다기 보다는 그의 뒷면을 가득 메운 스크린이었다. 스크린에 투영된 영상은 열연하는 마이클 자신의 모습을 담기도 했지만 그가 은유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쏟아 내고 있었다. 어린이! 이들을 그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들을 위해 애쓰고 있음을 그는 알리고자 했다.

수줍어 하는 동양 어린이, 배고픔에 지친 기아, 마이클 잭슨의 품안에서

밝은 웃음을 전하는 어린이 등, 그는 여러 민족의 어린이를 그리며, 그 역시 어린이 처럼 순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하고자 했다. 그가 그의 순수성을 나타내는 양식은 의상이었는데, 거의 매번 노래가 끝날 즈음엔 그는 예의 흰 반팔 셔츠 차림으로 돌아갔다. 그는 무거운 제복으로 무장하고 노래를 시작하지만 노래가 끝날 즈음엔 그는 백색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뒤편 스크린엔 어린이의 얼굴이 투영된다.

평화

우리의 갈등을 탱크 한대로 완벽하게 표현하였다. ‘Earth Song’을 부를 때, 전쟁폐허를 무대에 그대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마이클 주변에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갑자기 탱크의 등장... 총구를 겨누는 병사 앞에 모두 엎드리지만 마이클만이 사랑으로 병사를 포옹하고 병사의 마음을 돌려 놓는다. 여기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대중가수이기 보다는 사회 갈등 - 크게는 국가간의 갈등 - 의 해결사이며 평화를 시혜하는 자로 각인된다. 그의 노래와 춤은 평화를 부르는 주술(呪術)인 동시에 그의 공연은 평화를 부르는 의식(儀式)이 되어 그는 우리 모두의 숭배 대상으로 격상된다.

그러나 그는 사랑과 평화라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관중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양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그는 그의 신민(臣民)을 관리하는 철저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 즉 그는 최선을 다 하되 비극적으로 한다. 그는 노래 부르면서 결코 웃지 않는다. 그의 얼굴엔 언제나 희망 대신 절규가 베어 있고 기쁨 대신 슬픔이 젖어 있다. 그가 이번 공연에서 보여준 눈물과 절규는 어쩌면 그의 공연을 거부하고자 했던 집단에 대한 항의 일런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사람은 누구나 한계 속에서 얼마간의 억압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경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억압에 직면하고, 그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은 영웅으로 부각된다.

3. 마이클 잭슨 제국

마이클 잭슨은 그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특별한 존재로 관리하고 있는데 곧 절대자이다. 이번 공연 포스터와 공연장 무대 정면에 부착된 그림은 제복 입은 마이클 잭슨의 전신을 부조(浮彫)한 회색빛의 석고상 사진이다. 공연장에서 그의 석고상 그림은 마치 전설속의 인물처럼 또는 미래를 지배할 제왕으로 그의 등장을 기다리는 관객을 내려다 보는 양상이다. 이는 마이클 잭슨의 영웅적 상징화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연 오프닝의 우주선 불시착 연출과 더불어 그의 존재를 더욱 신격화하는데 증폭 작용을 하며 영웅을 기다리는 대중의 심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포착한 연출이다. 미래에 있을 지구의 불투명한 운명과 그것에 따른 불안감, 그러나 영웅의 등장은 새로운 별을 찾아나서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의 등장으로 지구위엔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역사(history)가 시작된 것이다.

영웅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다. 그는 영웅이면서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 앞에서는 탱크도 정지하고 총부리를 겨누는 군인마저도 회개한다. 그는 영웅이면서 또한 신이기도 하다. 새로운 신정국가(神政國家)에서 새로운 신화 즉 역사를 써내려가는 절대적인 주권자로 군림한다. 이런 점에서 마이클 잭슨의 공연은 철두철미하게 조작적이다. 여기서 관객은 이미 '조사' 되었고, '연구' 되었으며, '파악' 되었다. 오프닝의 영상을 통해 모든 관객은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었다고 '착각' 하게 되었고, 그 새로운 세계의 영웅이자 신(神)인 마이클 잭슨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에 의해 현실은 부인되고 그가 전하는 이미지만이 남게 된다.

4. 공연이 끝나고 : 이미지와 실재의 혼동

이미지는 현실이 아니며 비현실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대책없는 대리만족을 일시적으로 안겨 줄 수 있을망정 그 뒤에 찾아올 자아상실감은 때때

어줄 수는 없다. 그는 공연의 모든 면을 직접 조정하여, 공연과 그의 실제의 삶을 구분짓는 선을 와해시키려고 한다. 그의 공연과 그의 개인적인 삶이 모두 뒤섞여 있어 신민(神民)은 이미지와 실재와의 구분을 흐리게 된다. 실재와 이미지를 섞어 버리고 융합시킨 결과, 모든 것이 이미지화 되고 실재는 그 가운데 매몰되어 버린 '비현실'이 실재로 받아 들이게 된다. 한편 그 역시 그가 만든 이미지 속에서만 살기에 더욱 절규하며 그의 신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몰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지 속에는 절대적인 진리나 객관적인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활에서 이들이 제외된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주관적인 이미지의 세계에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소외될 수 밖에 없고, 이미지가 변형 또는 사라질 때 이미지의 소비자는 그 정체성을 잃어 버려 절망에 이르게 된다. 대중문화의 스타가 사라질 때 그의 추종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